

경남지방의 문화재 (慶南地方의 文化財)

朴敬源

신라시대(新羅時代)는 말하자면 경남지방(慶南地方)의 황금시대(黃金時代)라고 할 수 있다. 대륙문화(大陸文化)에 대(對)하여는 언나제 후진성(後進性)을 면(免)하지 못하던 이 지방(地方)이 역사(歷史)를 통(通)하여 문화(文化)의 각광(脚光)을 받은 유일(唯一)한 시대(時代)였던 것이다.

경남지방(慶南地方)은 한반도(韓半島)에서도 가장 일찍부터 문화(文化)가 발달(發達)한 지역(地域)의 하나이다.

따라서 각종(各種) 문화재(文化財)가 도내(道內) 각(各) 지역(地域)에서 많이 발견(發見)되어 왔는데 이러한 문화재(文化財)들은 대체로 우리 나라 다른 지역(地域)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나, 깊이 검토(檢討)해 본다면 그 사이에는 다소(多少) 지역적(地域的)인 특색(特色)이 발견(發見)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특색(特色)이라 결국(結局) 장구(長久)한 시일(時日)에 걸쳐서 그 문화(文化)를 육성(育成)한, 그 지역(地域)의 자연(自然)환경(環境)의 그림자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각도(角度)에서 경남지방(慶南地方)의 문화재(文化財)를 개관(概觀)해 본다면, 도내(道內) 낙동강(洛東江) 유역(流域)에서 신석기(新石器)시대 말기(末期)의 원시(原始)농경(農耕)민(民)의 유적(遺蹟)이나 유물(遺物)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 보다도 풍부한 것이 우선 눈에 띄일 것이다. 그리고 이 농경민(農耕民)의 후손들은 다음 시대에 가서, 소위 가야제국(伽倻諸國)이란 특수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각지에 적지않은 유적을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도 신라(新羅)나 백제(百濟)와는 다른 지방색(地方色)이 없지 아니하다.

또, 신라문화(新羅文化)의 중심(中心)지에 인접한 이 지역에는 신라문화(新羅文化)의 영향이 가장 농후(濃厚)하고 일본(日本)과의 관계가 깊은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 역시, 이 지방의 지리적인 특수성에 유래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와같은 특색, 말하자면 지역성(地域性)이라 할 수 있는 점에 치중(置重)하여 이 지방 문화재의 현황(現況)을 대략 소개(紹介)하고자한다.

1. 원시농경문화(原始農耕文化)의 유적(遺蹟)과 유물(遺物)

경상남도(慶尙南道)는 동해안의 태화강(太和江) 유역과 서경(西境) 섬진강(蟾津江) 좌안지대(左岸地代) 및 해안선의 일부분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이 낙동강(洛東江)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 낙동강(洛東江)과 그 지류(支流)인 남강(南江) 및 황강(黃江) 유역의 대소(大小) 충적평야(沖積平野)들은 온화한 기후와 적당한 강우량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한 생산지대로 손 꼽히는 곳이다.

이와같이 자연의 혜택이 두터운 이 지방에는 일찍부터 주민들이 정착하며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말기에는 이미 원시적인 농경생활에 들어 갔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아마 한반도(韓半島)에서도 가장 일찍 농경문화가 싹트게 된 지역의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문화재는 부산시(釜山市)와 도내 전지역에서 빠짐없이 발견되며, 그 발견장소도 이미 백(百)을 넘었는데, 그 분포(分布)는 부산시의 해안지대와 김해평야(金海平野), 진해만(鎭海灣)의 연안평야(沿岸平野)등지에 높은 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이 도내의 다른 곳에 비해서 원시주민(原始住民)들에게는 생활상의 조건이 적합한 지역이었다고도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지금까지 비교적 조사가 잘 된 관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사천만(泗川灣) 연안이나 남강(南江) 황강(黃江)의 유역, 또는 거제군(巨濟郡) 남해군(南海郡)의 도서지역(島嶼地域)같이 그 조사가 충분히 미치지 못한 곳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지 문화재의 분포(分布)만으로 속단(速斷)할 문제는 아니다, 그 시대 문화의 밀도(密度)나 전파(傳播)를 시사(示唆)하는 참고는 될 것이므로 그 지역별 분포(分布)를 표시하여 둔다.



<연가명금동여래입상(延嘉銘金銅如來立像)>

이 표에 수록(收錄)된 107件的 문화재 중에서 60件은 해방후(解放後)에 발견 조사된 것이며, 그 중에서도 진해만일대(鎭海灣一帶)의 유적은 그 전부가 근년(近年)에 이르러 확인된 것이다.

부산시(釜山市)·경상남도(慶尙南道)

사전(史前) 유적(遺蹟) 및 유물출토지 분포표(遺物出土地 分布表)

동부지방(東部地方)	
울산시(蔚山市)·울주군(蔚州郡)	五
양산군(梁山君)	三
부산시(釜山市)	一五
중부지방(中部地方)	
밀양군(密陽郡)	四
김해군(金海郡)	一七
진해기(鎭海市)·창원군(昌原郡)	一五
고성군(固成郡)	七
충무시(忠武市)	一
거제군(巨濟君)	二
함안군(咸安郡)	三
창녕군(昌寧郡)	八
의령군(宜寧郡)	二
서부지방(西部地方)	
진주시(晋州市)·진양군(晋陽郡)	七
삼천도시(三川浦市)·사천군(泗川郡)	四
남해군(南海郡)	三
하동군(河東郡)	三
산청군(山淸郡)	一
함양군(咸陽郡)	二
거창군(居昌郡)	二
합천군(陝川郡)	三

이 시대의 문화재는 해안선이나 또는 거기서 멀지 않은 내륙의 구릉(丘陵)에 퇴적(堆積)된 패총(貝塚)을 주로 하여 여기에 따른 주거유적(住居遺蹟) 유물산포지(遺物散布地) 또는 각종 매장유적 (토광묘(土壙墓) 석상묘(石箱墓) 석실묘(石室墓) 지석묘(支石墓) 등)들이고, 또 발견되는 유물(遺物)로는 각종 석기 골각기(骨角器) 토기(土器) 같은 이기(利器)나 생산용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국내 타지방의 그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듯하다.

여기에 한가지 지적(指摘) 되어야 할 것은 앞에서 표시한바와 같이 많은 문화재들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이 시대의 주거지(住居地)로는 김해(金海) 회현리(會峴里) 패총(貝塚)과 창원(昌原) 웅천(熊川) 패총(貝塚)에서 발견된 이예(二例) 뿐이라는 사실이다 앞으로 이 방면의 조사나 관리사업에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이러한 문화재들을 엄격히 따진다면 석기시대(石器時代)에 속하는 것은 즐문토기(櫛文土器)를 반출(搬出)하는 울산(蔚山) 부산지방(釜山地方)의 몇몇 패총(貝塚)뿐인데 이 즐문토기(櫛文土器)를 남긴 주민들은 해안과 대강(大江)의 연안에서 주로 어로(漁撈)와 수렵(狩獵)에 의존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머지 대다수의 유적들은 즐문토기(櫛文土器)와는 계통이 다른 「무문토기(無文土器)」를 만들고 원시 농경의 수준에 도달한 주민들의 소산(所産)으로 이미 금속문화(金屬文化)에 접촉한 흔적이 보이는 곳도 적지 아니하다.

이와같이 내용이 다른 문화를 가진 원시(原始)주민(住民)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는 한국문화사(韓國文化史)의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 시대의 도내문화재(道內文化財)에 대한 조사연구가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2, 가야제국의(伽倻諸國)의 문화재(文化財)

낙동강(洛東江) 유역의 원시농경민(原始農耕民)들의 문화는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대륙에서 파급된 금속문화(金屬文化)의 자극을 받아서 차차 성장하여 각지에 소부족국가(小部族國家)를 형성하고, 낙동강(洛東江)을 교통로로 삼아 소위(所謂) 가야(伽倻)제국(諸國)이란 일종의 정치연맹체(政治聯盟體)에 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오랜 시일이 걸린 것 같은데, 이것은 경남지방(慶南地方)이 반도의 동남단(東南端)에 편재(偏在)하고 있다는 지리적 조건 때문일 것이다. 알다싶이 한반도(韓半島)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적에는 언제나 그 중심인, 대륙에서 남으로 파급(波及)되었으므로, 이 지방은 대륙의 선진문화(先進文化)를 섭취하는데 가장 불리한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 지방에 석기시대(石器時代) 말기의 문화재가 풍부한 것은 일찍부터 문화가 발달한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위치상의 불리한 조건 때문에 대륙의 금속문화(金屬文化)를 가장 늦게 받아 들였거나, 또는 그 자극이 완만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 가야제국(伽倻諸國)이라고 하는 연맹체(聯盟體) 같은 특수한 정치조직체가 성립되었다는 것과, 또 그것이 다른 지역에 신라(新羅) 백제(百濟) 같은 통일국가(統一國家)가 성립(成立)된 뒤에 까지 존속(存續)되었다는 것, 그 사실도 하나의 문화적(文化的)인 후진현상(後進現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야제국(伽倻諸國)에 관한 국내사료(國內史料)는 거의 인멸(湮滅)되어 오늘에 전하는 것이 적고, 일본측(日本側)의 사료(史料)도 전적으로 믿을만한 것이 못되어 우리 국사(國史)에서도 가장 모호(模糊)한 부분이 많다.

그것에 비하면 이 시대의 문화재는 주로 거대한 봉토(封土)를 가진 고분군(古墳群)과 거기서 나온 부장품(副葬品)들인데, 가야국(伽倻國)의 고지(故地)였던 낙동강(洛東江) 연안(沿岸)의 각지에 군재(群在)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화재가 남아 있는 것만도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 고분군(古墳群)들은 소위(所謂) 변진(弁辰)十二國의 위치와도 관련되는 것이데 김해(金海) 동래(東萊) 양산(梁山) 함안(咸安) 영산(靈山) 창령(昌寧) 합천(陝川) 거창(居昌) 진주(晉州) 등지(等地)에 많이 남아있고, 이 밖에도 고성(固城), 합천군(陝川郡) 삼가(三嘉), 산청군(山淸郡) 생초(生草) 창원군(昌原郡) 동면(東面) 등지(等地)에서 규모가 큰 고분군(古墳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함안(咸安) 창녕(昌寧) 양산(梁山) 진주지방(晉州地方)의 일부분만이 발굴(發掘) 조사(調査)되었는데, 그 결과, 신라(新羅)와 백제(百濟) 문화의 영향이 여러 모로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그 묘제(墓制)나 부장토기(副葬土器)에는 고유(固有)의 지방색(地方色)이 나타나고 있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 문화재의 대부분은 조사의 손이 미치기도 전에 거의 파괴되었고, 출토된 유물들도 암암리에 처분되어 버렸다. 또 최근에 와서는 국토개발이니, 개간이니 하는 국가사업에 편승(便乘)하여 악질적인 도굴과 무지한 파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시대 역사의 공백을 채울 사료(史料)는 새로운 문화재의 발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터이므로, 이와같은 문화재의 파괴행위는 곧, 우리 역사를 좀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3, 불교관계(佛敎關係)의 문화재(文化財)

경남(慶南)의 중요문화재는 대부분이 불교관계의 유물들인데 그 중에서도 신라시대(新羅時代)의 그것이 가장 많음은 물론이다.

경남(慶南)의 동부(東部) 울산(蔚山) 양산(梁山)의 일부는 경주지방(慶州地方)과 더불어 처음부터 신라(新羅)의 고토(故土)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이외(以外)의 지역(地域)도 신라(新羅)의 인접지(隣接地)로서 신라시대(新羅時代)는 말하자면 경남지방(慶南地方)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전술(前述)한바, 대륙문화(大陸文化)에 대하여는 언제나 후진성(後進性)을 면하지 못하던 이 지방이 그 역사를 통하여 문화의 각광(脚光)을 받은 유일한 시대였던 것이다.

지금 도내에서 조사된 사원지(寺院址), 또는 불교관계의 유적 중에서 문화, 또는 유물에 의하여 신라시대(新羅時代) 건립(建立)이 거의 확실한 것이 59件이고, 고려시대(高麗時代) 이후(以後)의 유물 밖에 없는 곳은 一六件에 불과하며, 그 밖에 원소재지를 알 수 없는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중요(重要)문화재(文化財) 13점(點)과 미(未)조사(調査)에 속하는 수 많은 사원(지)(寺院(址))이 있으니,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신라(新羅)의 불교문화(佛敎文化)가 이 지방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있었는가를 짐작할만 하다.

이러한 불교관계(佛敎關係) 문화재들은 모두가 신라통일(新羅統一) 이후의 것이고 그 이전의 것은 아직 발견된 것이 없으며, 김해지방(金海地方)에는 더러 가락국시대(駕洛國時代)의 불적(佛蹟)이라 전 하는 곳이 있기는 하나 전설(傳說) 이상의 확증(確證)이 있는 것이 없다.

통일신라(統一新羅)도 초기의 유적은 경주(慶州)에 가까운 울산(蔚山) 양산지방(梁山地方)에 국한(局限)된 느낌이 있는데 태화사지(太和寺址)(울산(蔚山)), 통도사(通度寺)는 이 지방으로는 최고의 불적(佛蹟)이다. 최근에 태화사지(太和寺址) 부근에서 십이지상(十二支像)이 조각된 석종형(石鐘形) 부도(浮屠)가 발견되었고, 언양지방(彦陽地方)에서도 우수(優秀)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문화재들은 대부분이 신라(新羅) 말기에 가서 선교(禪敎)가 들어온 뒤에 경영(經營)된 유적들이다.

그러므로, 그 사원(寺院)들의 위치도 창녕지방(昌寧地方)의 일부 유적이외는 평지에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모두가 인적이 먼 심산(深山) 유곡(幽谷)에 자리잡게 되어, 지리산(智異山) 일대는 나말(羅末) 불교문화의 일대중심(一大中心)을 이룬 감(感)이 있어서 관례(關例) 문화재도 의외(意外)로 풍부한 듯하나 이직 충분(充分)히 조사되지 못하였다.

고려왕조(高麗王朝)가 일어나서 도읍(都邑)을 송도(松都)로 옮긴 뒤로는 이 지방은 문화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벽지(僻地)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고려이후(高麗以後)의 불만한 문화재는 신라시대(新羅時代)에 비하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감이 있다.

그래도 고려(高麗) 초기까지는 신라미술(新羅美術)의 전통이 살아 있는 작품이 간혹

남아 있으나,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불교(佛敎) 자체의 타락(惰落)과 더불어 쇠퇴(衰退)한 모습이 뚜렷하다.

다음 일람표(一覽表)④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주요불적(主要佛蹟)에 수록(收錄)한 불적(佛蹟)들도 반드시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창건(創建)된 사원(寺院)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이전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사원지(寺院址)로 봐야 할 것도 적지 아니하나,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우선 이 시대에 편입(編入)하여 두었다.



<영암사지 쌍사자석등(靈巖寺址 雙獅子石燈)>

불교관계 주요문화재 일람표(佛敎關係 主要文化財 一覽表)

(부산시(釜山市)·경상남도(慶尙南道) 소재(所在))

① 창건연대(創建年代)가 확실(確實)한 신라시대(新羅時代) 불적(佛蹟)

불적명(佛蹟名)	년 대 (年 代)	관계주요유물(關係主要遺物)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	선덕왕(善德王) 一五年 (六四六)	계단(戒壇)
울산(蔚山) 태화사지(太和寺址)	선덕왕대(善德王代)	석종형 부도(石鍾型 浮屠)
함안(咸安) 방어산마애석불 (防禦山魔崖石佛)	애장왕(哀莊王) 二年 (八〇一)	
함천(陝川) 해인사(海印寺)	애장왕(哀莊王) 三年? (八〇二)	석탑 석등(石塔 石燈)
창녕(昌寧) 인양사(지) (仁陽寺(址))	헌덕왕(憲德王) 五年 (八一〇)	비상와당(碑像瓦當)
산청(山淸) 단속사(지)	헌덕왕(憲德王) 五年以	석탑 초석(石塔 礎石) 등

	(斷俗寺(址))	(八一〇)	
밀양(密陽)	표충사(表忠寺)	홍덕왕(興德王) 四年?	석탑(石塔)
		(八二九)	
하동(河東)	쌍계사(雙溪寺)	홍덕왕(興德王) 五年	부도 탑비(浮屠 塔碑)
		(八三〇)	
진주(晋州)	연지사(蓮池寺)	홍덕왕(興德王) 八年以前	동종(銅鍾)(재일본(在日本))
	위치미상(位置未詳)	(八三三)	
부산(釜山)	동래범어사	홍덕왕(興德王) 一〇年?	석탑(石塔), 석등(石燈)
	(東萊梵魚寺)	(八三五)	
창원(昌原)	봉림사(지)	경명왕(景明王) 八年以前	석탑(石塔), 부도(浮屠),
	(鳳林寺(址))	(九二四)	탑비(塔碑)

② 창건연대(創建年代) 미상(未詳)의 신라시대(新羅時代) 불적(佛蹟)

불적명(佛蹟名)	관계주요유물(關係主要遺物)
부산(釜山)(구포(龜浦)) 만덕사지(萬德寺址)	석탑(石塔) 석등(石燈) 석주(石柱)
울주(蔚州) 망해사지(望海寺址)	부도(浮屠)
청송사지(靑松寺址)	석탑(石塔)
간월사지(澗月寺址)	석불(石佛)
석남사(石南寺)	석탑(石塔) 부도(浮屠)
대곡리사지(大谷里寺地)	석탑(石塔) 석불(石佛)
중산리전탑지(中山里塙塔址)	탑전(塔前)
강동면마애불(江東面摩崖佛)	마애(磨崖) 석불(石佛)
양산(梁山) 미타암(彌陀庵)	석불(石佛)
운흥사지(雲興寺址)	석불대좌(石佛臺座) 석조(石槽)
김해(金海) 안곡리탑(安谷里塔)	석탑(石塔)(年代?)
범방리탑(凡芳里塔)	석탑(石塔)(年代?)
밀양(密陽) 무봉암(舞鳳庵)	석불(石佛)
봉성사지(奉聖寺址)	석탑(石塔)
창원(昌原) 불곡사지(佛谷寺址)	석불(石佛)
함안(咸安) 대사지(大寺址)	석불(石佛)
장춘사(長春寺)	석불(石佛) 석탑(石塔)
창녕(昌寧) 관룡사(觀龍寺)	석불(石佛)
옥천사지(玉川寺址)	석탑(石塔) 석등(石燈)
토천리사지(兔天里寺址)	석탑(石塔)
송현동마애석불(松峴洞磨崖石佛)	석불(石佛)
송정리동탑(松亭里東塔)	석탑(石塔)
송정리서탑(松亭里西塔)	석탑(石塔)
직교리당간석주(直橋里幢竿石柱)	석주(石柱)
보림사지(寶林寺址)	석탑(石塔)
의령(宜寧) 보천사지(寶泉寺址)	석탑(石塔) 석등(石燈)
진양(晋陽) 청곡사(靑谷寺)	석탑(石塔)

	효자리사지(孝子里寺址)	석탑(石塔)
하동(河東)	신흥사지(新興寺址)	철불(鐵佛)
	탑리사지(塔里寺址)	석탑(石塔)
	정서리석불(亭西里石佛)	석불(石佛)
산청(山淸)	사월리시지(沙月里寺址)	석불(石佛) (현재진주시(現在晉州市))
	범학리사지(泛鶴里寺址)	석탑(石塔)
	삼장사지(三壯寺址)	철불(鐵佛) 석탑(石塔) 석등(石燈)
	벽계암지(碧溪庵址)	석탑(石塔)
	단계석불(丹溪石佛)	석불(石佛)
함양(咸陽)	청룡사(靑龍寺)	석불(石佛) 와당(瓦當)
	덕봉사지(德峯寺址)	마애석불(磨崖石佛) 석탑(石塔) 석등(石燈)
	벽송사지(碧松寺址)	석탑(石塔)
	극락사지(極樂寺址)	석불(石佛)
합천(陝川)	청량사(淸涼寺)	석불(石佛) 석탑(石塔) 석등(石燈) 등
	월광사지(月光寺址)	석탑(石塔)
	영엄사지(靈嚴寺址)	석탑(石塔) 사자석등(獅子石燈) 초석등(礎石燈)
	대동사지(大同寺址)	석등(石燈) 석불(石佛)
거창(居昌)	감악사지(紺岳寺址)	석등(石燈)
	건흥사지(乾興寺址)	석불(石佛)
	양평동사지(陽平洞寺址)	석불(石佛)
	농산리사지(農山里寺地)	석불(石佛)

③ 원위치(原位置) 미상(未詳) 중요불교문화재(重要佛敎文化財)

김해(金海) 수로왕릉문(首露王陵門) 석조팔각연화대좌(石造八角蓮華臺座)

창원(昌原) 읍내(邑內) 석탑(石塔)

거제(巨濟) 원양면(遠梁面) 금동석가여래입상(金銅釋迦如來立像)

(현재국립박물관(現在國立博物館))

창녕(昌寧) 영산(靈山)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

의령(宜寧) 연가명(延嘉銘)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현재국립박물관(現在國立博物館))

의령(宜寧) 봉수면(鳳樹面) 출토(出土)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동우(同右))

진양(晉陽) 이반성(二班城) 출토(出土)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동우(同右))

진주(晉州)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현재 서울대학박물관(大學博物館))

남해(南海) 고현(古縣) 출토(出土)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하동(河東) 고전(古田) 출토(出土)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相)

(현재국립박물관(現在國立博物館))

함양(咸陽) 이은리(吏隱里)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

합천(陝川) 쌍책면(雙冊面) 출토(出土)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

거창(居昌) 폐탑면(廢塔面) 석조상(石彫象) (현재거창교육청(現在居昌敎育廳))

④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주요문화재(主要文化財)

문화재명(文化財名)	연대(年代)	관계주요유물(關係主要遺物)	비고(備考)
밀양(密陽) 소대리오층석탑 (小臺里五層石塔)			(전천주사지(傳天主寺址)) 석탑(石塔)
만어사영원사지 (萬魚寺榮原寺址)	충숙왕(忠肅王)九年 (1322)		부도탑비(浮屠塔碑)
김해(金海) 감로사지(甘露寺址)			석탑(石塔) 귀부(龜趺)
창원(昌原) 성주사(聖住寺)			석탑(石塔) 석등(石燈)
함안(咸安) 주리사지(主吏寺址)			사자(獅子) 석탑(石塔)
거제(巨濟) 하청북사(河淸北寺)	현종(顯宗)一七年 (1026)以前		동종(銅鍾)(재일본(在日本)) 사지미상(寺址未詳)
진양(晉陽) 용암사지(龍岩寺址)			부도(浮屠) 석비(石碑) 전(傳)
명석면사지(鳴石面寺址)			청동신장입상(靑銅神將立像)
옥천사(玉泉寺)	고종(高宗)39年 (1252)		금고(金鼓)
하동(河東) 원강사지(元崗寺址)			동종(銅鍾) 향로(香爐) 동경등(銅鏡等)
함양(咸陽) 승안사지(昇安寺址)			석탑(石塔) 석불(石佛)
거창(居昌) 강남사지(江南寺址)			석불(石佛)
가엽사지(迦葉寺址)			마애석불(磨崖石佛)
갈계리사지(葛溪里寺址)			석탑(石塔)
함천(陝川) 반약사지(般若寺址)	인종(仁宗)3年以前 (1125)		석비(石碑)
통도사국장생석표 (通度寺國長生石標)	선종(宣宗)2年 (1085)		
밀양(密陽) 무안국장생석표(武安國長生石標)			상동(上同)
양산(梁山) 내원암금고(內院庵金鼓)	선종(宣宗)8年 (1091)		
밀양(密陽) 표충사향로(表忠寺香爐)	명종(明宗)7年 (1177)		
통도사(通度寺) 은입사동향로(銀入系銅香爐)			
양산(梁山) 물금면용취암석조여래좌상(勿禁面龍萃庵石造如來坐像)			원위치미상 (原位置未詳)
창원(昌原) 용화전석조여래좌상(龍華殿石造如來坐像)			동상(同上)
부산(釜山) 온천동오층석탑(溫泉洞五層石塔)			동상(同上)
해인사(海印寺)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	고종(高宗)이삼년 (1236)		

4.

경남지방(慶南地方)이 대륙문화(大陸文化)에 대하여는 변경이나 종착점 같은 위치에 있으나, 한편 일본문화(日本文化)에 끼친 영향이란 의미에서는 시발점과 같은 중요한 구실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부산(釜山)이나 거제도(巨濟島)에서는 대마도(對馬島)가 바로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가까운 이 해협에는 일찍부터 한일간(韓日間)의 교통이 열려서 그 내왕(來往)은 아마 이

지방에 사람들이 정착한 당초(當初)부터 시작되었으리라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산지방(釜山地方)의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패총(貝塚)에서 발견되는 즐문토기(櫛文土器)가 일본(日本) 구주지방(九州地方)의 해안지대(海岸地帶)에 까지 퍼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證明)하는 것이다.

또, 일본(日本) 미생문화(彌生文化)의 대표유물(代表遺物)인 「미생토기(彌生土器)가 김해(金海), 동래(東萊), 부산(釜山), 전포동(田浦洞) 패총(貝塚)의 그것과 일치점이 많은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등전량책교수(藤田亮策教授)의 말과 같이 경남지방(慶南地方)의 「무문토기(無文土器)」는 일본(日本) 「미생토기」의 조형이란 것이 이미 동양문화사(東洋文化史)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동씨저(同氏著) 「朝鮮古代文化(조선고대문화)」)

이와같은 예는 비단 토기(土器)에만 한정(限定)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각종 문화재에 예외없이 나타나는 특색이므로 당시의 구주지방(九州地方)은 경남지방(慶南地方)과 같은 문화권에 들어 있었다해도 과언(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 당시(當時)는 이 해협(海峽)을 사이에 두고 국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언어에도 큰 지장(支障)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문물(文物)의 교류(交流)는 물이 흐르듯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유롭게 파급(波及)되어 갔던 것이다.

이와같은 교류(交流)는 삼국정립시대(三國鼎立時代)에 들어가서 한층 더 활발해졌고, 그 교통상의 중심인 낙동강(洛東江) 연안의 가야제국(伽倻諸國)과는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일본어(日本語)에서 외국(外國)을 의미하는 「から」라는 말은 그들이 맨 처음에 접촉한 외국이며, 또 외래(外來) 선진문화(先進文化)를 들여온 가락국(駕洛國)을 지칭한 것임은 주지(周知)의 사실로서, 한 때는 백제(百濟) 신라(新羅)와의 내왕(來往)까지도 이 낙동강(洛東江)의 교통로(交通路)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부(一部) 일본(日本) 사람들은 낙동강(洛東江) 유역의 가야제국(伽倻諸國)을 소위(所謂) 「임나(任那)」라 하여 마치 자기들의 식민지(植民地)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것을 반론할 우리 사료(史料)는 희귀(稀貴)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점(點)을 생각한다면 이 시대의 문화재들이 어떤 의의(意義)를 가진 것인가는 스스로 짐작이 갈 것이다.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내려가서는 국력의 쇠퇴와 변방이 허술함을 틈타서 해구(海寇)의 도량(跳梁)이 이 지방에 우심(尤甚)했다.

이 해구(海寇)의 침략(侵略)은 이 때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실로 신라이후(新羅以後) 기록에 남은 것만 치더라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거제도(巨濟島) 같은데는 그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으로 고려(高麗) 원종(元宗) 12년(1271年)에는 일시(一時) 현(縣)을 폐(廢)하여 거창군(居昌郡)에 우거(寓居)하였다가 이조 세종(李朝 世宗) 4년(1422年)에야 겨우 수복(收復)하였다.

그 사이 一五〇年 동안은 거의 그들의 도량(跳梁)에 방임(放任)해 둔 셈이니 그 파괴와 살육(殺戮)이 내륙(內陸)의 각처(各處)에 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던 것이다.

이러한 수난은 그 두로 임진난(壬辰亂)에서도 또다시 되풀이되어 각종(各種) 문화재(文化財)의 파괴(破壞) 약탈행위(掠奪行爲)가 자행되었던 관계로 도내(道內) 해안 지대에는 고려(高麗) 이전의 문화재란 거의 볼 수가 없고, 내륙의 산중 깊은 지라 잡은 사원(寺院)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를 모면(冒免)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현재 우리 도내(道內)에는 고려이전(高麗以前)의 목조건축물이라곤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

임진난(壬辰亂) 때까지도 도내 각 처에는 고려자기이래(高麗磁器以來)의 전통을 계승(繼承)한 요업(窯業)이 건실(健實)하게 발달되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 전란기중(戰亂期中)에 송두리째 일본(日本)에 이식(利植)되어버린 뒤로는 다시 재기(再起)하지 못하였고, 그 반면에 일본(日本)은 본격적(本格的)인 도자기공예(陶磁器工藝)의 기반을 닦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高麗時代) 이후(以後) 문화의 약탈행위로 항상 피해를 입힌 일본(日本)이 이 지방에 반감지 않은 유산(遺産)을 남긴 것이 있으니 임진란(壬辰亂)때 주(主)로 도내(道內) 해안선에 축성(築城)한 그들의 성곽(城廓)들이다.

이때, 일본군(日本軍)은 평양패전(平壤敗戰)과 수군궤멸(水軍潰滅)후 남해안까지 후퇴하여 그 철수작전의 근거지를 삼기 위하여 서생포(西生浦)에서 웅천(熊川)에 이르는 해안에 십여성(十餘城)을 축성(築城)하고, 정유년(丁酉年)에는 상륙하면서부터 창원(昌原)에서 순천(順天)에 이르는 다도해(多島海)에 오성(五城)과 우익(右翼)의 울산성(蔚山城)을 신축(新築)하였던 것이다.

이 일본식(日本式) 성곽들은 대개 평야나 해안에 들출한 산정(山頂)을 삭평(削平)하여 그 최고처(最高處)에 이중삼중(二重三重)으로 된 아성(牙城)을 두고 그 아성(牙城)을 둘러싸고 외곽선에 성벽을 높이 쌓고, 그 밖에는 호(壕)를 파고 또, 성곽(城廓) 전체(全體)를 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이 독립하여 전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 뿐 아니라 본성(本城)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요지(要地)에는 지성(支城)을 쌓고, 성(城)과 성(城)사이의 연락(連絡)을 위하여는 그 중간 요소(要所) 요소에 약(約) 일백행정(一白行程)의 간격(間隔)으로 적은 번성(繁城)을 두었다.

이러한 소규모의 성곽중(城郭中)에는 토석혼축(土石混築)이나 때로는 토성(土城)으로 된 것도 있었던 모양이고, 개중에는 이미 흔적이 없어진 것도 있다.

특히 거제도(巨濟島)의 해안에는 기록(記錄)에도 없는 소규모의 왜성(倭城)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조사(調査)가 되지 못하였다.

(필자(筆者) · 경남고등학교장(慶南高等學校長))